

▶ 매일 INDEX



3면

“틀 깰 인물 필요”

2021년 10월 8일 금요일(음 9월 3일) 제2875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메가시티 전북 고립 위기”

나인권 도의원, “광역도시권으로 전략 수정해야”

송하진 도지사 “국가균형발전, 시대적 사명 됐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공동 계획 밝혀



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북만 뒤로 빼져있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지원에서 소외됐고,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라면서 메가시티와 광역도시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나 의원은 “GRDI와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2% 수준에 그치고 1인당 소득 역시 전국 최하위권으로 낙후지역의 대명시가 된 전북에 터닝포인트가 될 히든카드는 바로 광역도시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나인권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가 미완성으로 끝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후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라면서 이를 관찰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추진 의지를 노동자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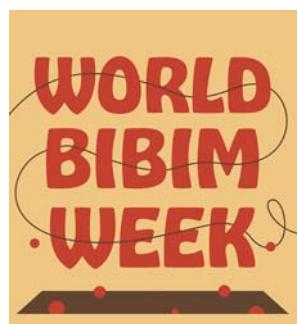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사명이 됐다”라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시·도별 공동 대응 계획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답변하는 송 지사

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주비빔밥축제, 새로운 맛의 축제로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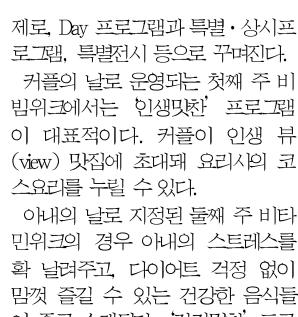
내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워크제’ 형식

그림에서는 채식을 경험해보고 싶거나 건강한 음식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채식 음식과 지역식 재료로 만든 포케(날생선 샐러드), 각인한 샐러드 등이 선을 보인다 특히 사찰음식 명장 ‘대안스님’의 미식예술 미담명상, 미식채식으로 구성된다.

남편의 날로 운영되는 셋째 주 단백질워크에서는 육즙 가득한 고기의 진한 맛을 입맛에 맞춰 골라 먹을 수 있는 ‘고기맛찬’이 준비된다.

마지막 넷째 주에는 동서양의 맛과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월드워크로 진행된다. 월드워크에서는 ‘미식 할로윈’과 부모님과 식사를 등의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주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맛콘서트&체험 ▲음식을 맛보며 공연을 즐기는 ‘맛콘’ ▲색다른 음식과 함께하는 무성무 선영회관인 ‘미식영화관’ ▲향교길 빙 접포를 활용한 특별전시 등도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제로 Day 프로그램과 특별·상시프로그램, 특별전시 등으로 꾸며진다.

커플의 날로 운영되는 첫째 주 비빔워크에서는 ‘인생맛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커플이 인생 뷔(view) 맛집에 초대돼 요리시의 코스요리를 누릴 수 있다.

아내의 날로 지정된 둘째 주 비타민워크의 경우 아내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고, 디아이트 걱정 없이 맘껏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이 주로 소개된다. ‘건강맛찬’ 프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피해 심각”

민주 김윤덕 의원, LH 국감서
LH 사내대학 개선도 요구

주고받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받은 땅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면서 “A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야자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 약자반이라고 설명해 찾다보니 신뢰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장

을 전달했다. 이어 김 의원은 “LH 사내대학(LH 토지주택대학) 교육의 질과 전임 교수 역량, 연봉 분제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내대학(LH 토지주택대학)을 신설해 LH 직원 신분의 전임교수와 교수직 신분의 객원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운영 중인데 전문성, ‘수업의 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교수 및 교직원 특혜성 시비가 일어 지적된 바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윤덕 의원은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과 명망은 둘째 치고, 12명의 전문 교수(전문위원)님들은 주당 짧게는 2시간, 정말 많아야 6시간 수업하고 월에 실수령액만 7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청구했다”면서 “일반 국공립 대학도 보통 이렇지는 않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몇 없는 사내대학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성과를 내야하고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11일 대체공휴일 관계로
신문은 12일 발행합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면서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인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통과 위험 등 인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게 “LH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연약지 반 현황이나 법면 상태, 석죽·옹벽 발생 여부 등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기업)이 직접 확인하고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입지를 시다리도 좋개인에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건축물의 현황과 입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장

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인전 문제와 직결돼 지반이 악화 곳에 건물을 옮기고, 여러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민족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침에 대한 인전을 확보해 줘야 하고, 무엇보다 시기연도 아니고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청겨주시고, 익산시 지자체와 협의해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

장수군

#맛있다!

#다섯가지맛

오! 아름다운 자여!

장수오미자

#장수몰

#오미자주

#오미자와인

장수몰 MALL
www.jangsumall.com
tel. 063)350-5448

NAVER

장수군청